

# 카자흐스탄 수도 아스타나 직항노선 다시 열린다

- 에어아스타나 6월 15일부터 아스타나-인천 운항 시작

- 국토교통부(장관 박상우)는 이번에 방문한 카자흐스탄의 항공사인 에어 아스타나가 인천-아스타나 노선을 6월 15일부터 운항을 시작한다고 밝혔다.
  - 에어아스타나는 '15년부터 인천-아스타나 노선을 주2회 운항하였으나 코로나로 '20년에 중단한 이후, 주2회 운항을 재개할 예정이다.
    - \* 현재 운항 : (인천-알마티) 아시아나 주 5회, 에어아스타나 주 7회
- 이는 지난 3월 한-카자흐스탄 간 항공회담에서 여객 운수권은 좌석제에서 횡수제로 변경하여 항공사가 기재를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게 하였고, 운수권도 총 16회 증대하여 더 많은 항공사가 진입하여 인적 교류도 늘어날 수 있도록 하였다.
  - \* 인천-알마티 노선은 주5회에서 주7회로 증대, 그 외 노선은 주14회 신설
- 그간 화물 운수권이 설정되지 않아 부정기로 운항하였으나, 주20회로 신설하여 아시아와 유럽을 잇는 전략적 요충지에 있고, 자원과 경제의 중심지로 부상하고 있는 중앙아시아 진출을 위한 발판을 마련하였다.
- 항공회담을 통해 증대한 한-카자흐 간 운수권을 지난 5월 국적 항공사에 배분 후 항공사가 운항을 준비 중에 있어, 올 하반기부터는 여객·화물 노선에 다양한 항공사의 운항이 가시화될 것으로 기대된다
  - 현재 운항하고 있는 아시아나 외에도 이스타항공, 티웨이항공, 에어인천 등 여러 항공사들이 추가로 카자흐스탄 노선을 운항할 예정이다.
    - \*\* (여객) 인천-알마티 : 이스타 주2회, 한-카자흐(인천-알마티 제외) : 티웨이 주3회 (화물) 한-카자흐 3/4/5 자유 : 아시아나 주8회, 에어인천 주6회, 시리우스 주6회

- 국토교통부는 한-카자흐스탄 간 운수권 증대로 여러 국적 항공사들이 취항할 수 있게 되었으며, 기업인 및 여행자 등 항공교통 이용객 편의와 경제협력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.

|       |                |     |     |     |                |
|-------|----------------|-----|-----|-----|----------------|
| 담당 부서 | 항공정책관<br>국제항공과 | 책임자 | 과 장 | 심지영 | (044-201-4207) |
|       |                | 담당자 | 사무관 | 김진희 | (044-201-4208) |
|       |                | 담당자 | 주무관 | 김대영 | (044-201-4212) |



**참고****한-카자흐스탄 항공협정 현황**

- 지정항공사 : 복수제(2개, one or two airlines)  
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우리측 아시아나항공, 티웨이항공  
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카자흐측 에어아스타나

- 운임 : 신고제

- 노선구조

| 구 분  | 출발지점      | 중간지점 | 목적지점         | 이원지점 |
|------|-----------|------|--------------|------|
| 한국측  | 한국 내 제지점  | 제지점  | 알마티, 아스타나    | 제지점  |
| 카자흐측 | 카자흐 내 제지점 | 제지점  | 서울, 다른 1개 지점 | 제지점  |

- 공급력

- 여객 (3/4자유) : 인천-알마티 주 7회, 그 외 주 14회
- 화물 (3/4/5자유) : 주 20회

- 운항현황('24년 하계 기준)

| <우리측> 여객 주 5회  | <카자흐측> 여객 주 7회   |
|--|--|
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■ 아시아나</li> <li>- 여객 : 인천-알마티 주 5회</li> <li>- 화물 : 인천-알마티-비엔나 등 주 8회</li> </ul>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■ 에어아스타나</li> <li>- 여객 : 알마티-인천 주 7회</li> </ul> |